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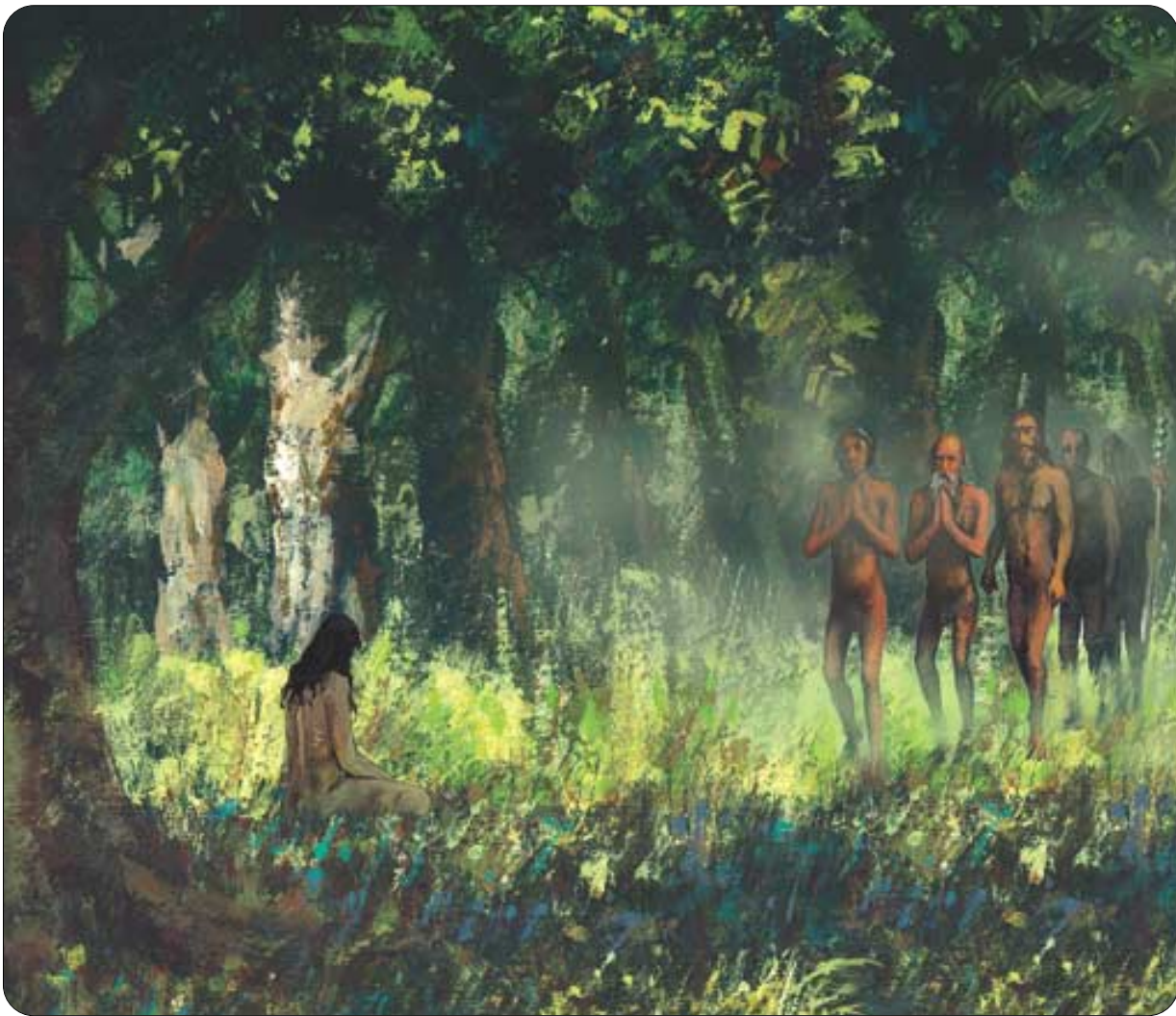
제15화 수자타의 출현



아 직도 생명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구나... 최후의 순간이 코끝까지 다가와 있음을 느끼면서도 싯다르타는 아직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번뇌를 이기고 해탈의 경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순간순간 해탈의 삼매경에 들때도 있었으나 곧 삼매(三昧, Samadhi)가 깨어지고 현실의 고통이 뼈와 살을 깊숙히 파고 들어오곤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싯다르타의 모습을 지켜보고있던 5인의 고행자들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서 사카족의 왕자는 죽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동안은 싯다르타가 어느 한순간에 해탈의 경지에 오를지도 모르는 좌선(坐禪)을 깨뜨릴 수가 없어서 지켜 보고만 있었던 것이었다.

“우리가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저 사카족의 왕자는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수도고행 중 굶어 죽으면 반드시 극락으로 오른다고 말들을 하지만 지금 저 왕자에게서 이대로 죽고 말면 지금까지의 고행이 덧없이 흩어질 것이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우리들의 소망도 다 함께 무너질 것이다.”

모두들 듣고보니 카운딘나(Kaundinya, 橋陳如)의 말이 옳은 것 같았다. 마침내 사카족의 왕자가 가고있는 고행길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은 5인의 고행자들은 우선 싯다르타에게 최소한의 음식을 공양해 목숨을 구하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열반의 여행을 무사히 마치도록 보살피기로 합의하였다.



“사 카의 왕자여, 우리 다섯 사람들이 왕자의 뒤를 따르지 벌써 오래 되었소이다. 제발 우리들을 내치지 말고 받아주소서, 우리는 결코 왕자의 수행길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요. 아니, 방해가 아니라 모든 힘을 다하여 왕자께서 고행을 마치고 열반에 오르도록 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서로 약속한 바 매일같이 두명씩 교대로 탁발(托鉢, Pindapata)을 하고 깨끗한 음식을 골라 사카의 왕자님께 공양(供養)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우리는 그동안 브라마나나 요가의 승려들을 흉내 내어 제 자신의 육체를 너무 괴롭혀 온 듯하오. 나는 지난 며칠간 삶과 죽음의 세계를 넘나들며 과연 내가 해탈을 얻기위하여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죄악은 육체로부터 출발한다고 믿었소. 잘 먹어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잘 입어 육체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아름답게 육체를 장식하기 위하여 모든 까마(Kama, 慾望)가 발생한다는 것 아니겠소.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죄악으로 단정하고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후생의 안락이 보장된다고 믿고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고 확대함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에 이르른 것이요.

그러나 육체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고행을 하면 할수록

육체의 고통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괴롭히고 마는 결과가 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요. 결국 육체의 존재를 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맑은 마음으로 삼매의 경지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불을 제거하고 불빛만 찾으려는 잘못된 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겼소.”

“여러분들은 아마도 내가 금욕(禁慾)과 금식(禁食)으로 고행(苦行)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높게 평가했을 것이요. 그러나 육체(禪)를 확대하여 삼매(三昧, 正心)를 선(禪)으로 밝힐 구한다는 것이 어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중이요. 그 이유는 내가 육체를 편하게 하고 살던 왕성시절에 때때로 요가(Yoga, 정신집중)속에 있어 보았는데 그때가 지금보다 오히려 마음이 맑았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요. 솔직히 번뇌를 벗기 위하여 수행하는 지금 내 마음에는 더 많은 번뇌(煩惱, Klesha)와 집착이 존재한다는 말이요.”

“결국 나는 지금까지 수행하는 방법에만 얽매어서 형식에 치우쳤고 정작 중요한 마음을 맑게하는 데에는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이요. 그것은 마치 불(火, 火)의 의미를 미워하면서 불(火)을 의미만 찾으려는 격이 아니냐 불이 타오르면 불(火)도 빛(光)이요. 불이 꺼지면 결국 불(火)도 사라지고 말 것이니 비록 커다란 불(火)이라는 아니더라도 조용하고 흔들림이 없는 불(火)을 유지해야만 밝고 흔들림이 없는 불(火)을 얻게 될 것이 아니겠소.”



이 제 싯다르타는 다시금 깊은 선정에 빠져 들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리라. 결심을 거듭하고 있으나 건너지 못할 것을 건너려 하는 듯 갈수록 미혹하고 더욱 아득하여 졌다.

도(道)는 슬기와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먹지 않는다고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는 없었다. 비록 몸은 허약해져 갔으나 슬기로운 마음이 괴워 오르고 있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허약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지금의 이 고행을 끝내려는 일념에서 엉뚱한 생각을 해낸 것은 아닐까...” 싯다르타는 또 다시 마음을 모아 두 번 세 번 검증하여 보았다.

싯다르타는 마지막 힘을 다 기울여 마음을 밝히고 생각

을 쉬며 온갖 경계를 초월해서 무상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고행과 단식이 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됨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지난 며칠동안 그 자신이 역설했던 불과 불빛의 관계를 분명히 검증하고 있었는데 혹시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싸였다.

“옳다, 나의 고통을 이제야 알았다. 까마(Kama)를 떠난다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도(道)는 약한 몸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모름지기 몸의 힘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음식은 모든 근(筋)을 충실히 하고, 근이 충실하면 마음 또한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고요함(禪定)이 따르고 비로소 선정(禪定)에 들게 되는 것이다. 선(禪)을 통하여 성법(聖法)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번뇌(煩惱)가 떠나게 된다.”



드 디어 싯다르타는 오랜시간 고행하며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사경을 헤맬 만큼 극도로 허약해진 몸이었다. 갖은 노력을 다하여 겨우 자리를 일어난 싯다르타는 한걸음씩 가까이 흐르고 있는 나이란자나(Nairanjana) 강으로 옮겨갔다.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씻고 새로운 수도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였다. 싯다르타는 강가에 늘어선 나뭇가지를 잡고 간신히 강물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 갈 수 있었다.

싯다르타가 아름다운 나이란자나 강에서 그동안 목은 때를 벗기며 목욕을 즐기고 있을 때 마침 수자타(Sujata)라 불리는 한 소녀가 그곳을 지나며 싯다르타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 소녀 수자타는 그곳 우루빌라 마을(Urutvilva-gra)의 촌장의 딸이었다. 그녀는 마침 숲속의 신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가던 중 싯다르타의 모습을 발견하고 수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공손히 발걸음을 멈추어 섰다.

오래간만에 몸을 깨끗이 하니 기분이 상쾌해지며 마음도 맑아짐을 느낀 싯다르타가 다시 강물을 벗어나려 하니 이미 몸의 기력을 다 소진한 듯 지쳐서 어쩔 줄 모르고 찔찔매게 되었다.

이때 수자타(Sujata)가 바라본 싯다르타의 모습은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5년간의 계속된 고행(苦行, Duskara-carya)으로 인하여 싯다르타의 몸은 피골이 상접하여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수자타는 비로소 이 사람이 숲의 신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죽고 말 것이다. 수자타는 있는 힘을 다하여 이 허약한 수도자를 끌어 올렸다. 이제 그녀는 이 고행 수도승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자비심이 일어나게 되었다. 싯다르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자기 몸 하나도 제법대로 다룰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때 수자타의 출현은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이었다.

